

학사학위 졸업논문
지도교수 김 영 하

단군신화와 샤머니즘

2010. 11.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이 미 준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샤머니즘의 정의와 특징

2.1 샤머니즘의 정의

2.2 샤머니즘의 구조와 관념

2.3 샤머니즘의 기능

제 3장 단군신화의 샤머니즘적 요소

3.1 단군신화의 내용과 구조

3.2 신화소에 따른 해석

3.3 구조에 따른 해석

제 4장 결론

제 1장 서론

한반도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단군신화로부터 시작된다. 한반도의 최초의 고대국가는 고조선이며 이를 건국한 단군왕검은 한민족의 조상이다. 서구 문화권의 아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단군왕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군 왕검과 고조선에 관한 해석은 해석자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성에 대한 정의와 의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

과거 일본의 일선동조론은 단군의 위치를 축소시키는 것에 주력했고 반대급부로 신채호는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사를 강조했다. 즉, 단군의 위치의 상하관계가 개인의 민족 의식을 나아가 국가의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소위 재야사학인들이 고조선 이전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집착하는 것은 민족주의에 매몰된 비합리적 주장이며 반대로 고조선이나 단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역사적 행동이다.

물론 고조선사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동북아 국가들간의 치열한 역사 논쟁이 이어져왔던 탓이 크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휘말리며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분명 우리의 역사를 지키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식이 번져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역사의식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사에 대해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한국에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모든 이들의 머리 속에 고조선의 이미지는 '단군신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100일동안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응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바로 단군이라는 이야기이다.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1) 김영하, 「단군이해 – 신화와 역사 사이」, 2005.

사실적이고 실증적이지 않은 내용때문에 역사적으로 단군왕검과 고조선이 실제로했는가의 여부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초자연성은 현대인들은 역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일종의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단군신화의 초현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역사적 사실만을 추출해낸 담백한 형태로만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사가 과거의 일을 올바르게 복원해내는 것이라면 신화 그 자체로도 문맥과 은유 속에 담긴 컨텍스트를 통해 당시의 우주, 인류, 문화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신화적 표현과 컨텍스트를 제거한 채 건조하게 추출된 내용만을 암기하는 것은 단군신화의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기에 아쉬운 반쪽짜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가. 물론 고조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요소인 왕의 모습이나 청동기문화, 경제적 요소인 농경문화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는 신화적 표현의 은유를 통해 극대화되어진 왕검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기능, 즉 샤머니즘적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김영하 교수님³⁾이 수업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교회에 다니면서 수능 때는 부적을 만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종교현상이었던 샤머니즘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근간을 한민족의 뿌리를 형성하는 단군신화에서 다시금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역사학도로서 사실상 끝을 맺는 필자의 역사의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속에 습합된 샤머니즘의 원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고조선의 건국신화로서 단군신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내용,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컨텍스트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반적인 종교 문화였던 샤머니즘의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단군신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측면과 이를 통해 단군신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서영대, 「신화 속에 그려진 고조선」, 『고조선, 단군, 부여』, 동북아역사재단, 2004, p. 56

3)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 2장 샤머니즘의 정의와 특징

2.1 샤머니즘의 정의

샤머니즘은 일반적으로 샤먼(Shaman(영), Schamane(독), Chaman(불))인 주술-종교적 직능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 형태, 복합이다. 샤먼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만주, 통구스계 여러 종족의 언어의 '흉분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 전 지역의 동일한 직능자를 지칭하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19세기 러시아 연구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주술-종교적 직능자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⁴⁾ 국내 학계에서는 일찍이 최남선이 중국어 표기를 차용하여 "薩滿"이라고 소개하면서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어왔다.⁵⁾

샤머니즘은 인류역사상 가장 일찍 형성된 종교현상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호주 등지에 넓게 분포된 보편적인 신앙현상이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조상이 되는 우랄 알타이어족의 민간신앙을 지칭하므로 시베리아 일대와 동북아시아로 지역을 좁힐 수 있다.⁶⁾ 줄였다고 해도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에 그 지역 만큼이나 샤먼, 샤머니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주술-종교적 형태로서의 샤머니즘과 각각의 샤먼의 특질이나 성격, 역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전해져오고 있는 한반도의 무(巫)도 이러한 샤머니즘이 시간과 공간의 변이 속에서 변화되어 자생해온 샤머니즘의 한 형태이다. 북부의 강신무와 남부의 세습무로 나뉘지며 그 형태와 기술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최초의 원래의 샤머니즘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둘을 완벽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초창기 고대사회의 샤머니즘을 추측해내고자 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한반도 무(巫)에 대한 정의와 구조보다는 원시적 형태의

4)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샤머니즘의 이해』, 박이정, 1999, pp.29~30

5) 최길성, 「한국샤머니즘의 기원과 특징」,(한국문화인류학 제22권), 1990, p.180

6) 황필호, 「샤머니즘은 종교인가」, 『샤머니즘 연구 제2권』, p.86

샤머니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적 모습 속에서도 샤머니즘의 기본적 구조와 보편성은 찾아낼 수 있다. 일본의 학자 佐佐木宏幹는 샤먼 개인의 특질로서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신이나 정령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능력을 얻는다. 2)신이나 정령과의 직접 교통(교류)에 의하여 역할을 다하며, 3)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이는 보통과는 다른 정신 상태가 된다⁷⁾는 점이다.

또다른 일본의 역사학자는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1)모계 씨족사회에서 출현하여 시간에 따라 부계로 이동해가는 모습이 드러나며 2) 각 민족의 자연숭배, 토템 숭배, 조상숭배를 전제로 하여 '만물에 영혼이 있다' 즉, 애니미즘을 주요 사상으로 채택한다. 또 3)샤만은 주로 병을 치료하는 일을 수행하고 4)샤머니즘이 행하는 의식의 주요 내용으로 신을 부르고(請神),굿을 하며(跳神), 신적인 상태에 진입하고(入神), 신을 보내는(送神)으로 이루어지며 5)샤만은 신의(新衣)를 입고 방울치마와 모자, 고누(거울), 북을 도구로서 사용했으며 6)샤만을 세습하지 않는다고 정의내렸다.⁸⁾⁹⁾

마지막으로 국내민속학자인 유동식은 샤머니즘의 기본 구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샤머니즘의 내용은 가무강신(歌舞降神)으로 술, 노래, 춤으로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둘째, 그 목적은 복을 초래하고 재액(災厄)을 제거하는 것으로 현세적인 제제초복(除災招福)에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정의들로 미루어봤을 때 샤머니즘의 핵심은 샤먼의 직접적인 신령, 혹은 정령과의 접신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병이나 현세의 재앙을 물리치거나 혹은 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7)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 p.34

8) 최남규 역, 「시버족 샤머니즘과 철학 사상」,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0, pp.421~422

9) 여섯번 째 보편성인 세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해당 연구 지역인 시버족의 특징과 더 직결되는 것으로 좀 더 초기의 샤머니즘에 기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도 삼한의 소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군의 경우,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한반도의 남부 지역이나 일본의 무가(巫家)의 경우 집안내에서 세습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기술로서 계승되었다.

10)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현대사상사, 1978, p.78, 재인용

2.2 샤머니즘의 구조와 관념

샤머니즘의 정의를 내렸으므로 이제 샤먼이 무엇(What)을 어떻게(How)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관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샤머니즘의 핵심적 행위인 신을 내리는 행위는 빙령(Possession), 액스타시(Extasy), 그리고 트란스(Trans)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말의 공통적 의미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¹¹⁾

이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바로 빙령현상이며 이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빙령상태에 이르렀을 때, 액스타시 즉, 탈혼(脫魂)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 종교사학자 M.엘리아데는 이를 '샤먼의 혼이 그 신체를 이탈하여 신이나 정령의 세계를 찾아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샤머니즘의 본질이라고 보았다.¹²⁾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혼의 이동이나 빙령이 있을 때에 육체가 빠지는 상태가 바로 트란스(Trace)라고 지칭한다.

정리해서 관계를 살펴본다면 샤먼은 정신적 '심적분리(mental dissociation)' 상태인 Trace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른 세계에서 혼을 불러와 몸에 깃들게하거나 반대로 몸에서 빠져나가 다른 세계로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샤먼의 행위는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가 아닌 다른 세계 – 이계(異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계의 종류는 샤먼이 모시고 있는 신이나 정령이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쉽게 생각하자면 하늘에서 난 것은 천계에, 땅에서 온 것은 지하계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샤먼이 찾아가거나 혹은 모셔오는 신들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프랑스 인류학자 E.롯트할크에 의하면 시베리아의 여러 신,령의 최고점에는 대개 하늘을 관장하는 천신(天神)이 대신(大神)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천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조물주이며 세계를 질서있게 유지하며 특히 북동 지역에서는 인간에게 호의

11) 서대석, 「한국과 만족 무속신화의 대비 검토」,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0, p.23

12)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 pp.37~38

를 갖고 있는 지극히 높은 존재로 그려진다.¹³⁾

천신의 밑에는 각기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제신(諸神)과 신령들이 존재한다. 대체로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기능을 관장한다. 예를 들어, '바람의 신'이나 '텐트의 신', '병의 신' 등을 들 수 있다.¹⁴⁾ 한국의 무가의 경우 이러한 것이 더욱 계승 발달되어 천신 아래에 상, 중, 하, 최하의 4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진 제신들이 존재한다.¹⁵⁾

2.3 샤머니즘의 기능

샤머니즘의 기능은 앞서 말했듯이 대체로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자들은 주술-종교적 직능자로서의 샤먼의 역할로 일반적으로 제사의 기능, 신탁의 기능, 주술의 기능을 거론한다.¹⁶⁾

제사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신이나 정령에 간절히 기원하고 이를 위무하는 역할을 갖는 것으로서의 제사"를 의미하며 주술이란 "신이나 정령을 비롯하여 여러가지의 초자연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¹⁷⁾ 신탁이란 예언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런데 제사나 치료의 역할은 분명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주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샤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일까.

샤먼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1)집단 히스테리의 해소, 2)개인 구원, 3)사회 안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집단 히스테리를 해소시킨다. 집단 히스테리란 일종의 집단적 빙령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빙령상태는 샤먼의 능력과는 다른 것이다. M.E 수피로는 개인의 빙령을 욕구불만의 자기표현으로 보았는데 즉, 스트레스에 의한 개개인의 빙령상태로 병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귀신들린 자'의 개념으로 받아

13)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 pp.85~86

14) 이는 W.보고라스의 츄구지족의 연구에 의한 것을 따온 것으로 농경문화가 아닌 유목민족의 경제적 상황에 알맞는 문화권으로 해석된다.

15)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 pp.103~104

16) 황필호, 「샤머니즘은 종교인가」, 『샤머니즘 연구 제2권』, p.86

17)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 p.141

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에의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피로의 모델에 따르면 '영적존재에 대한 신앙'(인식)을 바탕으로 '욕구 불만'(동기)이 생길 때 개개인은 병적 트랜스 상태인 '빙령'(지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샤먼이었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트랜스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샤머니즘이었던 고조선의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자연의 불확실성은 더 크게 크게 다가왔을 것이며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의 세계관 속에서 고대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변화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되어 병적 트랜스 상태로 드러났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샤먼이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 해소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다.

둘째, 개인구원의 역할을 했다. 이는 샤머니즘의 종교로서의 정체성과 결부시켜볼 수 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내에서는 샤머니즘의 종교로서의 자격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불도 3교와 기독교 등 고급 외래 종교와의 비교를 당하면서 샤머니즘은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암암리에 행해지는 '관습'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샤머니즘은 엄연히 종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은 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한 개인 구원의 역할이다.

황필호는 그의 논문에서 종교가 가지는 4분야에 걸친 10가지 항목¹⁸⁾으로 샤머니즘이 왜 종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샤머니즘은 공식적인 절차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 종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즉, 샤머니즘은 종교로서 현세적 병뿐만이 아닌 영적인 구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이는 샤먼의 위상과 관련되는 이야기이다. 앞서 거론했던 것처럼 샤먼은 제사를 관장하고 주술을 통해 종교적 기능을 수행했다. 초자연관과 사회생활과가 깊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술-종교적 직능자의 역할은 사람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좌우하게 된다.¹⁹⁾ 즉, 무력이 급격히 발전하기 전의 낮

18) 종교의 위치-①인지도, 종교의 내용-②초일상성 ③초월성 ④완성가능성 ⑤보편성, 종교의 실천-⑥의식 ⑦공동체, 종교의 사상-⑧인간존엄사상 ⑨신성사상 ⑩평화사상

19)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위의 책,p.174

은 정치발전단계에서 샤먼은 규칙을 만들고 지도하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샤머니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사회를 관장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장 단군신화의 샤머니즘적 요소

3.1 단군신화의 내용과 구조

단군신화의 내용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작성한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한다. 일연은 당시의 사회의 혼란을 두 가지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몽고와의 30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였고 다른 하나는 지배층의 타락과 수탈에 의해 형성된 계층간 불신과 반목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연은 옛이야기를 통해 지배층을 비롯한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불국토사상을 통해 몽고에 대한 극복을 위해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²⁰⁾와는 다르게 주술적이고 현세 기복적인 설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²¹⁾ 이 중 단군신화는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한반도 국사의 시조로서 대표적인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古朝鮮 王儉 朝鮮(三國遺事 卷 第一)

i)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 經云無葉山亦云白岳在白州地或云在開城東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與高同時

ii)古記云昔有桓國 謂帝釋也 庶子桓 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 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 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 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

20) 일연의 편찬과 동시대에 있었던 역사서로 왕명을 받아 김부식 외 10여명의 편찬위원들이 저술한 정사로 기체를 사용하였으며 왕실이나 통치자 중심의 사료가 주된 편집대상이 되었다.

21) 이범교 역해,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4, pp.21~25

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時

iii)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雄願化爲人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熊女者無與爲婚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雄乃假化而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

iv)唐堯即位元年戊辰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疑其未實 都平壤城 今西京 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 一作方 忽山又今旅達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²²⁾

위의 내용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i)『위서』를 바탕으로 한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존재
- ii)『단군고기』에 의한 환인의 서자 환웅의 강림
- iii) 웅녀의 등장과 단군의 잉태
- iv) 단군조선의 끝과 단군의 산신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등장인물의 관계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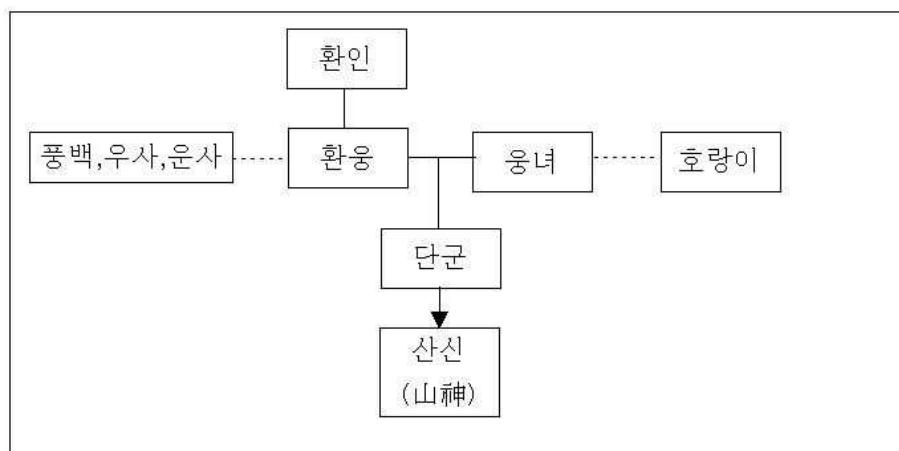


그림 1 단군신화 등장인물 관계도

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위서』의 내용을 인용한 i)의 부분은 대체로 국가의 존재와 그 시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존하는 위서인 진수의 『삼국지위지』나 위수의 『후위서』 등 7종 중 어느 곳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당시에 다른 위서가 존재했거나 여타의 중국을 서적을 의미할 것으로 추측된다.²³⁾

이 후 고기의 내용으로 인용되는 내용은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ii)에서 환인은 제석(帝釋), 즉 천주(天主)를 의미하며 그의 서자인 환웅은 인간세상에 내려오게 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환인의 성격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온화한 성격이며 환웅은 인세(人世)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림할 때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思)를 거느리고 환인이 준 천부인(天符印) 3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인간 세계의 수많은 일을 관장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샤머니즘적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래의 국사교과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바람, 비, 눈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농업경제였다는 증거이며 이들에게 정치적 관리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천부인 세 개는 샤먼의 도구인 검, 거울, 방울로 해석되어 단군이 가지는 제사장 즉, 샤먼왕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환웅은 인간이 되고싶던 곰이 변한 여인인 웅녀와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는다.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환웅이 이끄는 무리를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족으로 보고 토테미즘으로 각각 곰과 호랑이를 모신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던 고아시아민족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곰부족이 이주민족과 결합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는 한다. 이는 청동기 문화의 전파의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주민족이 선진문화를 갖고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설과 짹을 이루며 대표적인 단군신화 해석으로 여겨져왔다.

23) 범교 역해, 위의 책, p.87

따라서 단군신화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고조선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집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리고 단군은 조선을 건국한 뒤 기자에 의해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산으로 돌아가 산신이 된다. 즉, 그는 신인 아버지와 초자연적 존재인 어머니가 인간의 형태일 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다시 신(神)이 되는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 시조로서 단군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단군은 고유한 인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이 부분은 신화적 요소로서 제의의 내용을 스토리화하여 제의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승려 일연에 의해 재편집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군왕검에 대한 유력한 추측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공존하는 제정 일치의 사회인 고조선에서 최고 지배자를 치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복수의 단군왕검이 다양한 지역에서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²⁵⁾

3.2 신화소에 따른 해석

단군신화의 샤머니즘적 요소는 각각의 신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화소로 사용된 용어의 어원과 성격을 통해 샤머니즘과의 개연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단군왕검

단군왕검은 앞서 거론한바 있듯이 제사장의 의미와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가 합쳐진 복합어이다. 따라서 단군과 왕검은 각각 다른 뜻에서 출발했다.

단군의 어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몽고어 계통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다수의 의

24)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p.126

25) 송호정, 위의 책, p.125

견이다. 최남선, 이능화, 이병도, 이기백 등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터키, 몽고어의 탱그리(Tangri)와 동의어로 보았고, 안재홍은 '하늘의 왕'을 의미하는 몽고의 등거리, 여진어의 당걸, 당굴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살아서 단군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²⁶⁾

따라서 단군의 의미는 하늘신 즉, 샤머니즘의 천신(天神)의 자손임을 나타내며 동시에 제사 직능자인 샤먼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왕검의 어원은 통치자의 의미로 '임금'이나 '임검', '잇검' 등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왕의 계승자', '신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²⁷⁾ 양주동의 경우에는 왕검의 왕(王)자는 주인의 뜻을 가진 의미로, 검(儉)자의 경우 <검, 곰, 금> 등으로 '신'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²⁸⁾ 이는 차후에 논하게 될 환웅이나 웅녀가 나오게 되는 이유와도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환인(桓因)

하늘의 신 환인은 제석(帝釋)으로 하늘을 관장하는 천신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용어 출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안정복, 최남선등은 이러한 용어가 불교의 천주에 해당하는 '석가제환인타라'를 줄인 것으로 '석제환인' 또는 '환인'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았다. 즉, 당시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술되는 과정에서 불교적 관점의 천신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정호완은 태양신 '한님' 즉 '하느님'의 변형된 말로써 환인이 나왔다고 생각했다. 큰, 위대한의 뜻인 '한'과 태양을 뜻하는 '니'와 경칭 접미사인 '마'가 합쳐진 '니마'가 '님'이 혼용으로 쓰이다가 결국 환인의 음차로 변현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어원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결국 환인이 샤머니즘의 대신(大神)인 천신이자 태양신임을 보여준다.

26) 허목, 북애자, 김교현

27) 안호상, 이병도, 리지린의 주장

28) 윤명철, 『단군신화, 또 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p. 75

또한 환인의 성격은 서자인 환웅의 의중을 파악하고 무리와 도구를 주어서 허락해 줄 정도로 매우 인자하다. 이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북동지역의 천신이 지극히 높으며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다.

환인의 석제라는 칭호는 단군신화의 존재자체를 후대의 무속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증거로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자의 음차를 사용한다는 점과 삼국유사가 집필될 고려시대가 불교문화권이었다는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서자 환웅(桓雄)과 웅녀(熊女)

환웅의 어원에서 앞의 ‘환’은 환웅과 동일하다. 최남선의 경우 환(桓)은 광명, 혹은 태양신을 의미하여 웅(雄)은 남자 숫(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묘나 양주동, 정호완도 마찬가지고 ‘수컷 웅’자의 의미를 수컷의 의미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왜 곰과 같은 소리가 나는 ‘웅’자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단군의 설명에서 제기되었던 ‘검,곰,금’이 초기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환웅이나 웅녀의 역할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 무리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웅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환웅이 수컷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게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것은 초기 샤머니즘의 샤먼들이 대체로 여성이었다는 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내용에서 천신인 환인이 있는 이상 환웅은 사실상의 천신은 아니다. 즉, 천신계열의 신으로 땅에서는 ‘동굴’속에 살고 있던 지신(地神)계열의 신인 웅녀의 역할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환웅이 서자(庶子)였다는 점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서자란 현대적 의미로는 적통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자식을 서자라고 칭하지만 김정학은 ‘차남’의 의미로서 해석하고 고려시대에 서자의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에 소속됐던 것처럼 모계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²⁹⁾ 결국 어느 쪽이 되었든 환웅은 모계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

온다. 그리고 자신이자 고아시아족의 토템이었던 ‘곰’으로 상징되는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단군을 낳았다. 그렇다면 단군 역시 환웅보다는 기존 여성 샤먼이 존재했던 웅녀의 계열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웅녀의 변신 또한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앞서 샤먼의 방식으로 소위 ‘Trance’라는 상태는 정신적 각성의 상태로서 ‘빙령’과 ‘엑스터시’의 혼의 탈출이라 거론한바 있다. 또한 집단적 트랜스 상태인 빙령상황에서 샤먼은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집단 히스테리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웅녀의 곰이 단순히 한 마리의 곰이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곰부족의 샤먼은 집단 트랜스 상태에 빠져있던 민족을 천신 환웅과의 접신을 통해 100일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다는 행위로 인간의 상태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100일간의 삼가는 기간(忌)은 또 의미가 있다. 이 쑥과 마늘이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가 훨씬 나중이라는 점은 단군신화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드러나고는 하는데 이를 단지 신성한 음식이나 육식동물에게 채식을 권하는 금기라고 풀어본다면, 금기를 지키며 100일간 햇빛을 피하는 과정은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죽음과 같다고 풀이된다.³⁰⁾

천신,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햇빛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태양빛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는 트랜스 상태의 고통과 연결지을 수 있다. 소위 트랜스 상태에 이르기 위해 정신이 분화되는 듯한 고통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이지만 사실상 선택된 샤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호랑이가 실패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思)

29) 김정학의 경우 대개의 천신이나 태양신이 여신이므로 환인도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병윤의 경우 그저 서자인 환웅이 장자를 물어내고 아버지의 권리를 침탈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0) 윤명철, 앞의 책, p.64

풍백, 우사, 운사는 환웅이 하늘에서 함께 내려온 제신(諸神)들로 앞서 말했던 샤머니즘의 천신의 하위 신들의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제신들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바람, 비, 구름 등의 제천체현상과 자연의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은 수렵민에게서 볼 수 있는 야수주의적 관념에서 농경문화로의 변이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관장하는 내용 중에 살인과 명령이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드러낸다.³¹⁾

이들은 인간사의 환웅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360여개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샤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연결 시켜 볼 수 있다. 샤먼의 세 번째 기능은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 즉 사회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샤머니즘의 모습이 드러나는 동굴 암각화의 경우 대체로 사냥의 대상을 그려놓은 경우가 많은데, 샤먼들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 사냥감과 사냥방법을 교육하고, 또 해야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샤먼의 역할을 형성했던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즉, 풍백, 우사, 운사는 샤머니즘의 천신 밑의 제신으로써 나라의 규칙을 통해 사회 질서를 만들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5) 천부인(天符印) 3개

천부인 3개는 흔히 샤먼의 3대 청동의기인 검(劍), 경, 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샤먼의 도구로는 신의와 방울치마와 칼, 거울, 방울이 대표적인데 고고학과 연계해 보았을 때 당시의 샤먼의 도구는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울, 청동 방울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윤명철은 고정화된 상징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만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찍이 발달한 청동기 문화에도 검, 경, 옥의 청동의기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체로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³²⁾

31) 윤명철, 앞의 책, p.51

각각의 청동 3종신기는 샤머니즘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비파형 동검은 당시 석기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를 사용한 무기를 개발해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카리스마와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즉, 당시의 샤먼 지도자였던 환웅의 군사적 역할을 드러낸다.

둘째, 청동 거울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의 특성상 햇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샤먼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앞서 논했던 바와 같이 샤머니즘 국가의 태양과 햇빛은 매우 중요했으며 그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정령을 지닌 자연밖에 없었다가 청동기의 발달로 당시로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선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울은 소리를 통하여 정령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샤먼의 빙령 의식에서 트랜스 상태는 영혼이 이탈한 상태이며 빛과 대비되는 암흑의 죽음의 상태로 표현된다. 즉, 이러한 암흑 속에서 영혼이나 정령을 불러들일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소리가 된다. 따라서 청동기에서 나오는 맑은 소리는 사람들에게 샤먼의 역할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3.3 구조에 따른 해석

단군신화는 신화로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신화의 모티브를 크게 천강신화와 난생신화로 구분한다. 천강신화는 건국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선민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난생신화는 땅에 있는 알에서 깨어났다는 지신계열의 설화이다. 종교학자들은 이를 두고 전자는 북방계 신화, 후자를 남방계 신화로 나눈다. 설중환은 단군신화는 이러한 이 두가지 모티브가 융합되어 나타나며 둘은 서로 표리에 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³³⁾

필자는 이러한 한국의 건국신화만의 특징³⁴⁾이 샤머니즘의 기본 원리인 이계로의

32) 윤명철, 앞의 책, p. 35

33) 설중환, 「건국신화의 순환구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어문총론 제 38호』, 2003, p.146

34) 설중환은 단군신화 이외에도 부여계 동명성왕의 설화나, 신라의 건국시조들의 신화도 이와 같은 융합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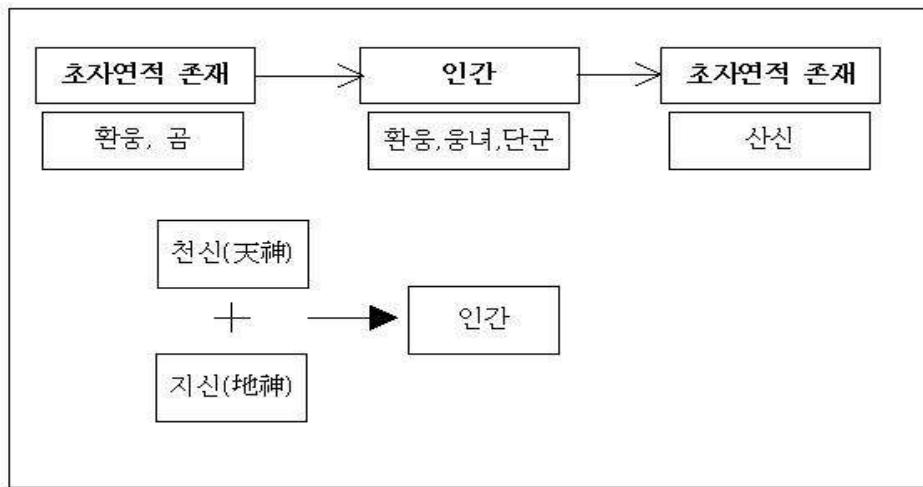


그림 2 단군신화의 인물 변화의 구조
 여행, 혹은 트랜스 상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천지인 합일의 3의 구조와 연관지
 어 볼 수 있다고 본다. 트랜스를 중심으로 단군신화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본다면
 위의 표와 같다.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신계의 환웅은 땅으로 내려온다. 이는 당연히 천강신화의 모티브이다. 그리고 지신인 응녀는 초자연적 능력과 고통으로 인간으로 변하고 인간인 단군을 낳는다. 즉, 단군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결국 천신계의 신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난생신화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군은 다시 산신이 된다. 인간 속에 내재된 천신계의 경로는 다시금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킨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천신(天)과 지신(地)의 하나된 사람(人)의 탄생이자 다시 사람 속에 신의 속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지인은 합일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 사상은 한반도 문화권에서 강화된 사상으로 인간으로 합일되는 인간중심적 사상이다. 때문에 단군신화의 결말부분은 똑같이 샤머니즘을 공유한 중국의 건국시조와도 다른 양상을 띤다. 중국의 『산해경』이나 『장자』에 등장하는 황제 건원의 경우 천상을 오가며 세상을 다스렸다.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의 신화들이 주로 신화를 제외하고 대체로 '죽었다'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쓰이는 것에 비하여 중국 신화에서 건국시조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자유로이 두 세계를 오간다.

을 가지고 있어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임태홍은 '내림굿'과 같은 빙령이 더 강한 한반도 일대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엑스터시보다는 빙령(포제션)의 방향과 일치하는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⁵⁾ 필자는 이러한 현상의一面에 천지인 합일의 정신에 의한 인간 존중의 사상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앞서 거론했던 종교로서의 샤머니즘이 강하게 지배했을 것이라고 본다.³⁶⁾

제 4장 결론

단군신화는 단군왕검이라는 한반도 역사의 시조의 탄생을 알려주는 신화로서 고조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변형하여 전달할 뿐 아니라 문맥과 은유를 통해 문화적 모습까지 드러내준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은 민족의 근원에 대한 개인의 역사의식, 더나아가 민족적 역사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러나 초현실적인 내용과 신화적 서술로 인해 단군신화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역사적 사실로 환원된 내용만으로 요약되기 쉬웠다. 또한 신화속에 담겨있는 샤머니즘의 모습이 다른 고급 외래 종교와의 습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음에도 미신으로 치부되어 단군신화의 샤머니즘적 모습 또한 약화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군신화를 통해 한반도의 샤머니즘의 원형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샤먼으로서의 단군의 위치를 살펴보고 단군신화의 문화적 가치와 유구한 역사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베리아로부터 뻗어와 동북아 지역의 보편적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의 기본 원리와 구조, 세계관과 사회적 기능을 알아보고 단군신화의 구조적인 그리고 각각의 신화소를 샤머니즘과 연계하여 해석했다.

단군신화는 시베리아 원형의 샤머니즘의 세계관과 구조, 기능적인 면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신화속에서 이계관과 천신과 제신들의 강림 그리고

35) 임태홍, 「한국 고대 신화의 구조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제 52집, 2007, pp.166~167

36) 황필호가 샤머니즘의 종교적 모습을 찾기 위해 내세웠던 10가지 기준 중 사상적 특징인 '인간존중사상'에 기초한다.

트랜스의 고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웅녀설화에 담겨있는 모계사회적 성향과 삼국유사의 작성시기에 영향에 따른 점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모습도 있었다. 흔히 곰의 토테미즘이라고 웅녀의 어원이 왕이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과 보통의 샤머니즘의 엑스터시와는 다르게 빙령현상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한반도의 특징과 천지인사상의 성립이 그것이었다.

최근 일련의 논의들은 이미 단군이 고유한 존재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위로서 파악되는 것이 굳어졌으나 여전히 단군을 포함한 고조선 사회 자체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사학계 뿐만 아니라 모두의 –특히 재야사학자들에게 – 논쟁의 거리가 되어 왔다.

이상의 분석은 단군왕검의 실존 여부를 떠나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과 샤머니즘적 믿음의 정체를 파악해볼 수 있었다. 고조선 문제에 대한 논쟁은 물론 유효한 논쟁이겠으나 자신의 민족만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경계없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던 문화적 모습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국경의 개념도 미흡하였다는 점을 주지 해보았을 때, 지역의 역사라는 개념을 고대사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는 우리만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단군의 진위여부를 떠나 우리의 조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하, 「단군이해 – 신화와 역사 사이」, 2005.
임태홍, 「한국 고대 신화의 구조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제 52집』, 2007
설중환, 「건국신화의 순환구조에 대한 역학적 고찰」, 『어문총론 제 38호』, 2003
윤명철, 『단군신화, 또 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이범교 역해,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4
황필호, 「샤머니즘은 종교인가」, 『샤머니즘 연구 제2권』
서대석, 「한국과 만족 무속신화의 대비 검토」,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인문학연구소, 2000
최남규 역, 「시버족 샤머니즘과 철학 사상」,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전북대인문학연구소
최길성, 「한국샤머니즘의 기원과 특징」, (한국문화인류학 제22권), 1990
서영대, 「신화 속에 그려진 고조선」, 『고조선, 단군, 부여』, 동북아역사재단, 2004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샤머니즘의 이해』, 박이정, 19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